

르포 / 본보 박기웅 기자, 설 앞두고 택배 알바 해보니

# 하루 500개 밤 9시까지 '배송전쟁' 실패없이 계단 오르락내리락 '녹초'

### 1t 트럭 130대 분량 달해 원룸촌 골목길 주차난에 승강기 없는 곳은 '지옥' 점심 거르기도 일쑤

설 명절을 1주일 앞둔 요즘 택배회사는 '전쟁' 중이다. 달동네부터 부촌 아파트까지 명절 선물을 나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본지 기자가 택배회사 일일 직원이 되어 택배기사와 동행했다.

지난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월출동 CJ대한통운 광산사업소. 전국에서 광산사업소로 넘겨져 배송될 택배 물량만 1t트럭으로 130대 분량이라고 했다. 이날 하루 배달되는 물량만 2만 7000개가 된다. 그나마 지금은 평소 수준이라는 게 택배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9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하루 4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사업소 안에 설치된 100m 길이의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면서 택배기사들은 1t 화물차량에 구역별로 자신들의 화물을 실어날랐다. 택배 분류하는데만 4시간이나 걸렸다.

택배 배달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배달장소가 적힌 송장을 따로 떼어내 보관해야 하는데 장갑을 끼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배달지역은 광산구 신창동 일대 상가 지역이다.

가래떡(10kg), 화장품(20kg) 등 상인들이 주문한 크고 무거운 물건이 많았다. 상가 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3~4m만 옮기면 돼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정도면 수월하게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상가 지역을 벗어나 원룸촌으로 배달 구역이 바뀌면서 발걸음이 빨라졌다. 원룸촌 배달은 주소가 적혀있어도 건물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다.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세워둘 곳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대충 주차해놓고 다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뛰어올라갔다 경적 소리에 뛰어내려가면 "차를 이따위로 세워둘 거냐"는 운전자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이러다 보면 금세 옷은 땀 냄새가 났다. 택배 직원들 사이에서 '지옥'이라 불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5층 이하 빌라 건물은 무작정 뛰어올라야 했다.

이날 11개동 260세대가 거주하는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배달물량은 50개. 처음엔 계단을 2~3개씩 내려갔지만 1시간 30분 넘게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물건을 나르는 것 보다 다리를 움직이는 게 더 힘들었다. 운전대를 잡는 것도 버거운 정도다.

아파트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는 경우도 눈치를 봐야 한다. 2m 길이의 커튼 블라인드를 경비실에 맡기려는데, 경비원은 대뜸 "집에 있는지 확인은 했느냐. 이렇게 큰 걸 좁은 경비실에 보관하느냐"며 큰 소리를 낸다.

점심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그날 맡은 물건을 다 배달해야 끝나는 탓에 밥 먹을



본보 박기웅 기자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원룸에서 조립형 탁자(20kg)를 들쳐메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아래는 수령인 주소가 적힌 운송장과 배송품을 확인하는 모습.

시간도 없다.

일 끝나면 보통 오후 7시 정도. 명절 때는 밤 9시가 넘는다고 한다. 이날 광산구 신창동 상가지역과 원룸촌, 월계동 아파트 등을 돌며 배달한 물량은 고작 92개. 물량 1건당 870원, 총 8만400원 중에서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속달된 배달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명절 때면 하루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한 택배 배달원은 "명절 때면 김밥 물고 운전해 가면서 배달해야 일이 끝난다"고 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전국 택배 배달물량은 2012년 14억600만건, 2013년 15억900만건, 2014년 16억2300만건으로 매년 1억건 가량 급증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점심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그날 맡은 물건을 다 배달해야 끝나는 탓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일 끝나면 보통 오후 7시 정도. 명절 때는 밤 9시가 넘는다고 한다. 이날 광산구 신창동 상가지역과 원룸촌, 월계동 아파트 등을 돌며 배달한 물량은 고작 92개. 물량 1건당 870원, 총 8만400원 중에서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속달된 배달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명절 때면 하루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한 택배 배달원은 "명절 때면 김밥 물고 운전해 가면서 배달해야 일이 끝난다"고 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전국 택배 배달물량은 2012년 14억600만건, 2013년 15억900만건, 2014년 16억2300만건으로 매년 1억건 가량 급증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의뢰인에 소송 당한 변호사...착각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착각', 성공보수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관련 소송은 항소심까지 간 뒤에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A(63)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 B씨로부터 20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끝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2월 수입했던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 피소까지 이르게 됐다. A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위중 교사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고 이후 B씨는 A 변호사 변론 덕분에 징

### 별형명 때 성공보수 약정 집행유예에 댄 조건 안 달아 2000만원 반환 소송 항소심서 화해 권고 결정

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A 변호사는 B씨측과 맺은 소송 위임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받으면서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당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20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정한 것 외에 집행유예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았던 게 불씨가 됐다. B씨는 뒤늦게 이같은 점을 내세워 A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성공보수금을 70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300

만원을 B씨에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사건이 법리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음에도 집행유예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착각해 벌금형 선고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당사자들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도 체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지난달에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박기웅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애인 명의 대여 아파트 분양 비리 자체 진상조사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재발방지 위해 해당 간부 제명 방침

광주지역 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불거진 '장애인 특별공급분 분양비리 수사' <광주일보 2월 5일자 6면>와 관련,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이하 광주장총)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이하 광주장총)는 9일 아파트 특별공급분 분양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데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모 장애인단체가 회원협회인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총은 이 장애인 단체가 협회사인 단체로 드러날 경우 투기꾼들에게 소속 단체 장애인을 소개해준 해당 간부들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총은 특히 다른 장애인 단체에

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총 관계자는 "5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당시 협회차원에서 각 협회사에 재발방지를 위해 구두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조만간 각 협회사 대표들을 만날 예정인데,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옹벽 붕괴' 대피한 아파트 주민 입주

광주시 남구는 9일 임시 시설에 대피 중인 봉선동 대화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했다.

남구는 이날 오후 5시에 안전진단 전문가, 교수 등과 회의를 열고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제거됐다고 판단, 대피중인 입주주민들의 입주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새벽 대화아파트 뒤편 소방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 30여 대가 파손되고 아파트 자체 안전이 위협받자 입주 주민 160여 세대는 집을 떠나 찜질방, 친척 집 등으로 대피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말다툼 끝 동료 폭행치사 목포경찰, 2명 영장 청구

목포경찰청은 9일 작업방식을 놓고 말다툼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심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6시 목포시 옥암동 S식당에서 동료 류

모(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류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남포 신도시 신축 공사장 작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류씨가 작업방식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서 무시하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택시 250대 상습탈이범 철창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주택가 등지에 주차된 택시 250대를 탄 30대 남성이 철창행.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장모(38)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김모(48)씨의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 뒤 현금 8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 등 전국 20개 도시에서 택시 250여대를 탄 혐의.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장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3년여 전 교도소 출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20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3천1백20만원

문의. 010-3605-5000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급매 - 1억 5500만원

## 빌라 "급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오상근외과 신우APT 제5동

##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 77평, 20층
- 최상층, 코너, 전망좋은 사무실 전용, 전체 울수리, 도시가스
- 보 2천에 월 100만원 임대가
- 매매 - 3억원

---

- 18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 매매 -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1200만원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1억원 이상

## 오천경매 H.010-3605-5000